

일원동 대청마을(단독주택지)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
관한 청원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제가 소개한 ‘일원동 대청마을(단독주택지)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
한 청원’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본 청원은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
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원동 대청마을(단독주택지)을 현재의 제
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
상향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.
- 1980년 개포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로 개발된 일원동 대청
마을은 조적조의 반지하층이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지역
으로,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층의 침수와 누
수, 도로 협소 등으로 주택의 노후화가 극심하고 주거환경 또한 매우
열악한 상황입니다.
- 1980년도 택지개발로 주거지로 확정된 이후에는 주거환경을 무시하고,
1987년도에는 주거지와 완충 거리도 없이(25m-30m 도로접지) 하수
종말처리장을, 1996년도에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북쪽과 동쪽
에 설치하여, 30여 년간 지역주민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한 악취와 유해
물질(다이옥신)로 고통을 겪고 있음은 물론, 주택가격 하락으로 엄청난
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이중고를 겪어 왔습니다.

□ 이에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제안으로 특별계획 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안한 바 있으나, 작년 8월 주민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단독주택지로 남게 되는 내용으로 「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이 결정·고시됨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지역 주민들은 반 지하층의 주거 사용을 해소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,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청원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